

영한 표기법의 개선과 실제적 운용^{*,**}

이종민

(전북대학교)

Lee, Chongmin. (2021). A new proposal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English-Korean transcrip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1), 25-48.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given system of English-Korean transcription and to develop the revised version with the concepts of easiness and uniformity. Basically the vowel system should be simplified to reduce the syllable length in Korean, so the Korean people may use the imported words with uniformity. In the consonant system the positional variation of the same sound should be changed to be more consistent and recognizable among the Korean people. Often it has been assumed to maintain the idea that the foreign pronunciation should not be distorted. However, the proposed scheme has been devised to figure out how foreign words are transcribed more consistently. 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existent in transcribed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asiness and uniformity of English transcription can be systemized more effectively.

주제어(Key Words): 영한표기법(English-Korean transcription), 통일성(uniformity), 영어 자음(English consonants), 영어 모음(English vowels), 수입된 단어(imported words), 언어정책(language policy), 언종차별(languageism)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은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은 흔히 우리의 현실과 법 (또는 방법)과는 어느 만큼의 거리가 있듯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는 사전에 표기되는 발음기호에 기반한다. 가장 단순한 생각은 사전에 표현된 발음기호를 각각 한글의 자모에 맞추어놓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영어의 발음기호를 직접적으로 한글로 옮겨 적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의 편리성이나 한국어 화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 이 논문은 대한언어학회 2020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학회 회원님들의 소중한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세분하여 보면, 필요한 음성을 생략하는 방법과 불필요한 음성을 추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영어의 한글 표기에 많은 예들이 두 개의 시스템이 갖는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엘리베이터(elevator), 테일 (tail)
- (2) 가. 본(bone), 론(lone), 존(zone), 콘(cone), 톤(tone), 폰(phone)
나. 스트리트(street), 스프링(spring), 스포츠(sports)

위의 (1)에 제시한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발음기호로 표기되는 소리만이 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전혀 다른 언어로서 음절 구성이나 조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어의 또는 한국인의 발음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위의 (2가)는 본디 영어의 발음에는 나타나는 이중모음의 두 번째 소리가 생략되어 있다. 즉 이중모음 [ow] (또는 [oU])의 활음(glides)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요구하는 자음에 따른 모음의 필요성 때문에 (2나)에서는 영어의 발음에는 없는 ‘으’가 추가되어 있다.

외래어의 한국어 표기에서 어느 특정한 발음이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그러므로 외래어의 표기에서 원지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원지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한국어 표기에 관한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표기의 원칙과 표기의 방법을 재검토하고, 특히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외래어 표기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마무리에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이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바른 표기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어지는 좋은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외래어 표기법에서 표기의 원칙

2017년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기의 원칙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 (3) 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다. 받침에는 ‘ㄱ, ㄴ, ㄷ,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라.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위의 표기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들은 현실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그러나 원지음 또는 원음을 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기초적인 출발점은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함에 있어서 원지음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가. water, yes, etc.

나. 워터, 예스, 등

국어의 현행 24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외래어가 많다. 어찌면 외래어를 한국어로 들어올 경우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배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모음의 숫자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의 10개로 제한한다는 것은 언어사용을 너무 크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애, 얘, 에, 예, 와, 왜, 외, 워, 웨, 위, 의’의 열한 개를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경우에는 ‘왜, 의’ 등의 쓰임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모음의 조합은 ‘오+우, 오+어, 우+아, 우+애, 등’의 결합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3가)의 규정은 모음 21개와 자음 14개를 합하여 35개의 자모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영어의 경우에 p와 f, b와 v 등은 외래어의 하나의 음운을 하나의 발음으로 적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5) 가. pine, fine; book, victory; etc.

나. 파인, 파인; 북, 빅토리; 등

다행히 영어의 자음이 한국어에서 하나의 글자로 잘 표현되고 있으나, 한국어에 없는 f와 v는 어쩔 수 없이 p와 b와 같은 자음으로 표기되고 있다. (3나)의 원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¹⁾.

한국어에서 ‘부엌, 밭, 꽃’ 등에서 보듯이 받침이 다양하지만, 받침으로 (3다)의 7개의 자음으로 한정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어의 표기를 간편하게 해

1) 여기에서는 영어의 f가 오직 ‘포’로만 표기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직도 실생활에서는 family와 ‘훼미리’에서 보듯이 f를 ‘ㅎ’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는 하다. s를 ‘스’와 ‘쓰’의 두 가지로 표기하는 경향도 여전히 있다.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어표기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명징성, 정확성, 효과성 등의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Milroy & Milroy, 1985, p. 41).

(6) 가. book, cook, took, etc.

나. 북, 쿡, 툃,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3다)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받침에 겹음을 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²⁾.

된소리가 전혀 쓰이지 않는 것도 일관성있게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경우에는 원지음의 정확한 표기라는 이유 때문에 된소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 영어에서는 된소리가 쓰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아시아의 외국어를 표현할 때 아직도 된소리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언어대중에게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가. Jutanugarn

나. 쭈따누까른, 쭈타누깐, 쭈타누간, 주따누간, 주타누간

태국 사람의 이름에 있는 Jutanugarn은 비교적 정확한 원지음으로는 ‘쭈따누까른’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원지음을 반영한다는 원칙보다 국제화 시대에 맞게 영어로 표기된 이름은 영어에 맞게 쓰는 것이 편리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3라)의 된소리를 회피하는 표기가 적합하게 보인다. 여기서 아시아인의 발음을 그 나라에서 직수입된 것으로 보느냐 또는 영어로 전환한 것을 사용하느냐의 혼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 언론사마다 또는 기자나 아나운서마다 표기나 발음이 달라지기도 한다(Cf. Jenkins 2000, pp. 66-68).

마지막으로 관용으로 굳어진 표기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관용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가능하다면, 관용으로 남은 표기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예를 들면, 단어 끝에 오는 -a는 실제로는 ‘-어’로 발음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로 표기되고 있다. ‘아시아(Asia), 코리아(Korea)’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받침을 그대로 쓰는 경우 ‘ㅍ, ㅌ, ㅋ’를 받침으로 쓰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샤프(sharp)’ 등이 있다. 로마자 표기에서는 거꾸로 ‘p, t, k’만을 받침으로 쓰는 경우에 ‘hanguk(한국)’과 ‘hangugin(한국인)’에서 보듯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써야 하는 불규칙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을 ‘한국이(이겼다)’라고 하지 않고, ‘한구기(이겼다)’는 발음을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이 담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3가, 나, 다)는 약간의 문제점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3라, 마)는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영어를 국제어로 생각한다고 할 때 현행의 아시아 국가의 영어 이름에 대한 표기원칙이 보다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어의 경우에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등의 쓰임이 많은 경우와 대체로 철자 중심의 발음을 하는 독일어와 스페인어와 동유럽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철자중심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2. 자음의 표기

가장 복잡한 것이 파열음을 어떻게 적느냐의 문제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모든 파열음을 ‘으’를 붙여 적는 것이다. 영어의 실제로 나오는 발음은 이와 매우 흡사하다. 파열음이라는 특성이 자체적으로 음절성까지는 유발하지 않는 미미한 방출(Release)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빠른 발화에서는 이러한 미미한 방출이 억제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발화 속도에서는 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의 국어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변화의 방향이 비교적 짧은 형(short forms)을 즐겨 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유성 파열음은 무조건 ‘으’를 붙여 적으므로 비교적 쉽게 표기할 수 있다. 무성 파열음의 경우에는 유음과 비음([l], [r], [m], [n]) 앞에서 그리고 단어 끝에서는 ‘으’를 붙여서 적는다. 즉, 모든 자음의 앞에서는 ‘으’를 붙여서 적는다.

영어의 p, t, k가 각각의 독립된 음절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포, 트, 크’로 표기되고 있어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 특히 단어의 끝이나 자음 뒤에 홀로 남는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8)³⁾

stamp[stæmp] 스탬프
 cape[keip] 케이프
 nest[neɪst] 네스트
 part[pɑ : t] 파트
 desk[desk] 데스크
 make[meik] 메이크

3) (8)의 예는 외래어표기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apple[æpl] 애플
 mattress[mætris] 매트리스
 chipmunk[tʃɪpmʌŋk] 치프멍크
 sickness[sɪknɪs] 시크니스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9)⁴⁾

bulb [bʌlb] 벌브
 land [lænd] 랜드
 zigzag [zɪgzæɡ] 지그재그
 lobster [lɒbstə] 로브스터
 kidnap [kɪdnæp] 키드냅
 signal [sɪɡnəl] 시그널

위의 예가 보여주듯이, p, t, k, b, d, g가 독립적으로 음절을 구성할 때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정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역시 chipmunk나 lobster의 경우에는 필자 주변의 실제의 언어 사용은 '칩멍크'와 '랍스터'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즉 p와 b가 모두 유성음의 받침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마찰음 sh [ʃ]이다. 영어의 발음으로 하나의 기호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어두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슈'로 쓰이고, 어말에서는 '쉬'나 '시'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두가 '시'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마찰음 [ʃ]는 사실 '스'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s의 발음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원래 없던 '이' 모음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다만 두 개의 유사한 마찰음인 [ʃ]와 [s]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전자는 '시'로 적고, 후자는 '스'로 적으면 단순해진다. 즉 마찰음 [ʃ]는 항상 '시'로 적는다. 따라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쇄', '셔', '셰', '쇼', '슈', '시'로 적을 수 있다.

(10) shopping [ˈʃɒpɪŋ] 쇼핑
 fashion [fæʃən] 패션
 sheriff [ˈʃerɪf] 셰리프

4) (9)의 예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 가져왔음을 밝혀둔다.

- (11) shrimp [ʃrɪmp] 슈림프 (→ 시림프)
 shrek [ʃreg] 슈렉 (→ 시렉)
 Schmidt [ʃmit] 슈미트 (→ 시미트)
- (12) cash (캐쉬 →) 캐시
 English 잉글리쉬 (→ 잉글리시)
 Irish 아이리쉬 (→ 아이리시)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된 용례 가운데 shrub는 ‘시러브’가 되어야 한다. 영어발음을 일관성있게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발음학습에도 도움이 된다(이규태, 2012).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므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실제의 발음에도 가깝다. 어두의 경우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는 하지만 통일성을 희생하면서 또한 발음의 편리성을 보아도 굳이 다르게 할 이유로는 허약해 보인다.

흔히 ch [tʃ], dg [dʒ]의 경우도 sh [ʃ]의 경우처럼 ‘이’를 덧붙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모음 앞의 [tʃ], [dʒ]는 ‘츠’, ‘즈’으로 적어야 하고, sh ‘시’의 경우에는 사뭇 다르다.

- (13) chart [tʃɑ : t] 차트, *차트
 manager [mænɪdʒə] 매니저, *매니저
 chewing [tʃu:ɪŋ] 추잉, *츄잉

위의 예가 보여주듯이, ch [tʃ]와 dg [dʒ]의 경우는 모음이 없을 경우에만 ‘치’와 ‘지’라고 표기하고, 모음이 올 때는 원래 없었던 ‘이’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ʒ]의 경우도 같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빈도와 s와의 차별성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외래어 표기에서 가장 문제로 보이는 경우는 f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이종민 (2009)에서 지적되었듯이, 영어의 f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발음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미디어에서는 3D를 ‘삼디’라고 말한 대통령을 비판하였고, 5G에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도 아니고, ‘파이브지’도 아닌 fiveG라고 발음하는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영어발음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손석희 아나운서가 ‘패스트 트랙’을 fast track으로 발음하는 등의 외국어의 강한 힘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신문기사 참조) 영어의 표기법으로는 fighting, 5G는 각각 ‘파이팅’, ‘파이브지’가 맞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f를 ‘ㅎ’으로 하고, 거기에 불필요한 모음을 추가하거나 모음을 왜곡하기조차 한다는 사실이다.

(14)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amily	패밀리, *훼밀리
fitness	피트니스, *휘트니스
Phoenix	피닉스, *휘닉스
fleece	플리스, *후리스

이렇게 잘못 표기하고 잘못 발음하는 이유는 첫째는 일본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무언가 한국어에 없는 f의 발음을 영어가 아닌 어정쩡한 형태의 발음으로 변환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지식인들이 영어로 발음하는 것을 부정확하게 모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최근에 일종의 멋을 부리는 방식은 마땅히 피해야 한다. 그것은 [dʒ]를 일부 영어의 원지음에 가깝게 한다는 의도에서 ‘s’을 추가하는 일이다. [dʒ]라는 발음기호가 보여주는 것은 [d]와 [ʒ]가 따로따로 만나서 하나의 [dʒ]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dʒ]는 있는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자음이다. 그러므로 ‘s’을 추가하는 일은 불필요한 뱀의 다리를 그려 넣는 것과 같다. 영어의 토박이 화자들이 하는 영어에도 그러한 발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연예인들이 과장되게 영어 발음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특징적인 경향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한때 바람처럼 스치는 유행이나 멋부림이나 장난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른다.

(15) edge	[edʒ]	*엣지, 예지
bridge	[bridʒ]	*브릿지, 브리지
wedge	[wedʒ]	*웬지, 웨지
switch	[swiʃ]	스위치, *스윗치
hitchhike	[hiʃˈhaɪk]	히치하이크, *히치하이크
age	(에잇지→)	에이지
bridge	(브릿지→)	브리지
edge	엣지 (→ 예지)	

어떻게 보면 원지음에 더 가깝게 한다는 핑계에서 또는 오해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 영어에 가까운 발음도 아니고, 설혹 영어에 가까운 발음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일이다. 외래어와 순화어 등의 사용에 민간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서 볼 수 있다 (박종덕, 2015, pp. 240-245).

다음은 ts [ts]와 ds [dʒ]의 발음이다. 외래어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자음을 하나로 단순화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경우를 이 두 개의 발음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발음으로

는 ‘트스’와 ‘드즈’가 맞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츠’와 ‘즈’로 자리 잡았다.

- (16) Keats [ki : ts] 키츠
 odds [ɔdz] 오즈
 woods [wUdz] 우즈
 goods *굿즈, 구즈
 Watson *와츄, 왓슨

위의 예에서 goods의 경우는 *‘굿즈’가 쓰이기도 한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단어의 중간에 ts가 오는 경우가 있다. 사람 이름인 Watson이 ‘왓슨’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드문 예외를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Watson에서 -son이 어미로서 독립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예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단어 안의 ts가 뒤에 나오는 접미어와 구분이 된다면, ‘츠’의 발음으로 통일되기가 쉬워진다. Watson의 경우는 Wat-와 -son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왓-슨’이 ‘왓슨’이라는 표기를 얻게 된 것 같다. Scotsdale의 경우에는 ‘스코츠테일’과 ‘스콧스테일’이 혼용되기도 한다⁵⁾.

우리가 -ds를 ‘즈’로 또는 -ts를 ‘츠’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아주 어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17) kids 키즈 (cf. keys)
 cards 카즈 (cf. cars)
 shots 샷즈 (cf. shot 샷)
 (18) presidents 프레지던츠 (단수형은 president)
 awards 어워즈 (단수형은 award)
 (19) MacDonald’s *맥도날즈, 맥도날드

위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복수형을 쓸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영어로는 복수형을 쓰는 것이 맞지만, 국어에서는 단수형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8)의 경우에는 단수형을 쓰지 않아서 거꾸로 단수형이 잊혀지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표기법에서 굳이 영어의 단수형이나 소유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영어에 유창한 사람이 비교적 많은 집단에서 복수형의 원지형에 가까운 발음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⁶⁾.

5) goods와 Scotsdale의 예는 모음 편에서 논의할 Vietnam과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6)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중요한 사용자는 보통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선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 지식인들이다. 이러한 계층의 차이를 어떻게 화합하느냐가 언어사회의 이슈일 수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표기가 반드시 옳다는 입장은 아니다.

단어의 처음에 ts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다.

(20) Tsunami	수나미, *추나미, *쓰나미
Fujitsu	후지쯔, 후지츠, 후지쓰
Tseng	생, *칭, *쯩
Tsonga	송가, *쑹가, *총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논의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름들을 국제적으로 이해한다면, 영어의 발음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이름들의 원출처는 일본어나 대만이나 프랑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제적인 쓰임을 보면 영어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어두의 ts-는 영어의 어두에 나타나는 ps-와 같이, t가 발음되지 않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각 ‘수나미, 생, 송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어 내의 -ts-는 Watson의 경우는 ‘s+s’ 또는 ‘츠’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Fujitsu는 ‘후지추’가 되어야 한다.

단어의 출생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발음해야할 필요성이 국제화시대에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원지어가 이제 영어라는 국제어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사회에 나가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편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느 일반인에게 원지음에 대하여 물으니 아주 강경하게 원지음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려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아프리카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럴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다. 왜 우리 국민들끼리 알아들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절대절명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놀랍기만 하다.

-tz의 경우는 ‘쯔’로 하는 것이 얼핏 맞을 것 같지만, 겹자음으로 쓰는 것이 기피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츠’로 같이 쓰는 것이 편리해 보인다. -tz를 ‘쯔’로 하거나 ‘츠’로 하는 것은 모두 틀린 발음이다. 굳이 원지음대로 한다면 ‘트즈’라고 해야할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tz로 끝나는 단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21) Hertz	허츠, *허쯔
Fitz	피츠, *피쯔

결과적으로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 오는 ts와 tz는 ‘츠’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ts는 ‘스’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th의 표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th는 [θ]와 [ð]의 발음을 가진다.

(22) Arthur	[á:r θ ər]	아서, *아더
McArthur	[mæká:r θ ər]	맥아서, *맥아더
Thatcher	[θ æfə(r)]	새처, *대처
Ethan	[i θ ən]	이선, *에단
Smith	[smi θ]	스미스
this	[ðis]	디스

어떤 이유에서 [θ]를 [ð]로 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th를 무조건적으로 [ð]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유성음 사이에서 무성음으로 발음된다는 발음현상을 고려할 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고유명사이어서 여지껏 써오던 관행을 따르고 있어서 고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나오는 이름들에서는 정확한 발음으로 표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θ]와 [ð]를 구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예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Mathew는 아직도 ‘매튜’라고 많이 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슈’가 되어야 한다. 아주 익숙한 것들도 때로는 과감하게 옳은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예외로 둘 것이냐와 새롭게 바꿀 것이냐를 결정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23) Matthew	[má θ ju:]	매슈, *매튜
Thames	[té m z]	템즈, *샘즈
thrill	[θ ril]	스릴, *쓰릴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는 더러 th를 t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Thank you’ 등도 거의 ‘탱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언의 발음이다. 우리는 표준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하여야 한다⁷⁾.

단어의 끝에 오는 s는 ‘스’로 표기한다. 다음에 논의할 단어 끝에 오는 a는 ‘아’로 적듯이 단어의 끝에 오는 s를 ‘스’로 표기함이 좋아 보인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24) Beatles	비틀즈, *비틀즈
sisters	시스터즈, *시스터즈
Jones	존즈, *존즈
kingsman	킹스맨, *킹즈맨
Queensland	퀸슬랜드, *퀸즐랜드

7)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θ]를 ‘쓰’로 표기하는 방법이 좋아 보인다.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현재는 Smith에서 보듯이 [s]와 [θ]를 똑같이 ‘스’로 표기하는데 ‘스미쓰’가 좋아 보인다

표기의 편리함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시각에서 모든 어말의 s를 ‘스’로 표기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risbane은 ‘브리즈베인’이 맞지만, ‘브리스베인’이 우리에게 편리하다. 여기에는 영어의 [z] 발음이 한국어에 없다는 것,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것, 나아가 차라리 [s]로 발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영어 지식인들은 이러한 한국어를 감안한 절충안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하여도 정확성을 찾아가자는 주장은 옳다. 따라서 s를 정확하게 ‘즈’로 표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단어 끝의 a를 ‘어’임에도 ‘아’로 적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굳이 덧붙이면 아무리 정확한 영어 발음도 한글로 쓸 때는 이미 정확성에서 벗어나 있다. ‘자스민’이라는 차를 ‘재즈민’이라고 하면 보다 정확하긴 하지만, 한국어로는 ‘자스민’이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다.

- (25) lens 렌즈, *렌스
drawers 드로즈, *드로스, *드로어즈

단어 끝의 s를 ‘즈’로 표현한 것은 ‘렌즈’와 ‘드로즈’등이 있다. 자음의 발음이 반복될 때 영어에서는 하나의 발음만 나지만, 국어에서는 둘 다 따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예에서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 (26) Times Square 타임스 스퀘어
kiss Susan 키스 수진
nice smash 나이스 스매시
fast track 패스트 트랙

우리의 표기방식으로 하면 ‘타임스 스퀘어’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타임 스퀘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성무성의 구별을 하지 않고 같은 자음의 발음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 영어의 발음이다. 단어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어 안에서는 굳이 두 번씩 발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 (27) Kyrgyzstan 키르기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즈스탄

굳이 이러한 이슈를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Kyrgyzstan은 예외적으로 ‘키르기스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원음을 존중한다는 지나친 배려가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etnam의 경우에 ‘비에트남’이 옳지만 ‘베트남’이라 쓰고 있다.

영어의 글자가 하나의 발음이지만 두 글자로 되어 있어서 마치 두 개의 발음인 것처럼 표기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두 개의 글자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발음기호로 표현되는 단어인 경우가 있다.

- (28) locker 라커, *락커
lucky 러키, *럭키

음료로 마시는 ‘박카스’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인데, Bacchus라고 쓰기 때문에 굳이 로마 신화의 이름으로는 ‘박쿠스’가 맞을 것이다. 처음의 c가 [k]이고, 다음의 ch [k]가 중복되어 있다. 그러나 영어로는 ‘박카스’가 아니라, ‘배커스([bækəs])’가 맞다. 워낙 오래된 상표이름이므로 너무 익숙해 있다. 여전히 왜 ‘박쿠스’가 아닌 ‘박카스’로 작명되었을까 모르겠다.

동일한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 역시 하나의 발음만 적는 것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런닝 맨’이나 ‘난닝구’ 같은 속어들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29) summer *섬머, 서머
running *런닝, 러닝
dinner 디너, *딘너
tunnel 터널, *턴널, *턴넬
channel 채널
panel *판넬, 패넬
Hermione *헤르미온느, 허마이오니, 헤르미오네
Anne *안네, 앤

아마 일본어의 영향으로 아예 하나의 자음을 가진 panel은 ‘*판넬’이라고 쓰이고 있다. ‘런닝’의 경우도 ‘*딘너’가 쓰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금세 분명해진다. Anne는 독일어에서 온 것으로 보면 ‘안네’이고, 영어로 생각하면 ‘앤’이 맞는 것 같다. running을 ‘러닝’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정책이 모국어와는 다르게 외국어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쉬운 예라고 할 수 있다(Lee, 2016).

영한 표기에서 흥미로운 예는 ‘헤르미온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므로 글자대로 읽는 방법으로는 ‘헤르미오네’가 가장 적절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 ‘헤르미온느’가 되어서 단어에 있지도 않은 ‘느’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나의 자음을 두 개로 쓰는 방식은 panel을 ‘*판넬’이라고 한 예에서 보는데, 영어의

‘허마이오니’는 일본어 방식의 ‘*헤르미온느’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영한 표기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외국어도 국어에 준하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언어정책의 긍정행동이 간접적으로는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영어교육의 효율을 높여주는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추구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폭넓게는 창의성이나 인성 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어와 외래어의 차별은 인문학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여도 뜻만 통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모음의 표기

외래어 표기법 안에서 모음의 기술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장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반모음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부 사항도 잘 서술되어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가끔 비판받는 이유로는 원지음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더 많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세계의 언어를 각 나라의 발음에 맞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표기법이 간략하여 제대로 통일된 표기체제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국의 언어에 따른 상세한 표기법을 구축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굳이 원지음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약하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원지음 또는 원음을 표기함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사실 원지음을 그대로 재현 또는 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주 간단한 예를 보자.

(30) Vietnam 베트남, *비에트남
Ronaldo 호나우두, *호날두, *로날도

우리는 Vietnam을 ‘베트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의 원음이나 영어 발음은 ‘비에트남’이다. 그런데 굳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비에트남’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베트남’으로 필요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킬 듯싶다. 원음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기도 하다⁸⁾.

8) 어느 영문학자는 영어 표기법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함으로써 무시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조선일보, 2009.10.21.).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영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의 한글 표기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한글화된 영어일 뿐

축구선수의 이름으로 Ronaldo는 국적에 따라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두 가지 표기가 있다. 두 사람을 구별하기에는 이러한 구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굳이 국제어로서의 영어로 ‘로날도’로 하는 것이 한국인에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원음의 정확함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원지음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모음을 표기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확한 발음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초기의 표기과정에서 철자에 따른 발음을 표기하던 것을 이제는 실제적 발음으로 바꾸어가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영어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이나 결여로 원음이 아닌 방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쉬운 예로, a는 ‘에이, 애, 아, 어’ 등으로 소리가 날 수 있다. 단어 처음 음절에 나는 ‘에이’나 ‘어’를 ‘애’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 (31) angel 에인절, *앤젤
 Angel-in-us 에인절인어스, ?에인절리너스, *에인절리너스, *앤제리너스
 Japan 저팬, *재팬

하나의 영어 단어의 발음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전적 발음의 원음을 표기해야 한다. 사전적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대전제이고, 한국어의 상황이나 한국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소전제가 될 것이다. 이상규(2011: 136)는 외래어 표기의 복잡성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고려할 것을 말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브랜드 Angel-in-us는 ‘앤제리너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인절인어스’로 충분하고, 굳이 연음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여전히 angel을 ‘*앤젤’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외국어의 바른 표기는 먼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표기작업의 중요한 요소는 일본어식의 발음 또는 철자의존적 발음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 (32) announcer [ənaʊnsə] *아나운서, 어나운서
 America [əmerikə] 아메리카, *어메리키
 atom [ætəm] *아툼, 애텀

‘아메리카’와 같은 단어는 너무 친숙하게 한국어처럼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나운서’와 ‘애텀’ 같은 용어들은 새롭게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이름으로 atommy를 ‘*아툼미’도 아니고 ‘*아툼이’가 아닌 ‘에터미’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영어의 발음에 대한

이다. 아울러 한국어화한 영어가 완벽하게 잘 표현되는 것보다 통일성있게 표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에 가서 살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정확한 영어 발음을 익힐 필요성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식에 대한 작은 변화를 보여준다.

영어라는 외국어의 특색은 하나의 a가 여러 다른 발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어두의 자음 다음에 오는 a도 ‘아’로 쓰는데 ‘애’인 경우도 있다.

- (33) banana 바나나, *버내너
 Canada 캐나다, *캐너더
 Alabama 알라바마, *앨러버머
 Ghana 가나, *가너

철자가 a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국어생활에 너무 익숙한 예들을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하여도 새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표기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외국어 표기의 언어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할 것 같은 사회적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유재원(2005, p. 16)은 언어학자와 각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주 특이한 상황은 강세를 받지 않는 단어 끝의 a는 실제 발음이 ‘어 [ə]’임에도 ‘아’로 적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특히 사람의 이름으로 단어 끝에 a가 많이 나타난다.

- (34) Paula, Anna, Laura, Kona, etc.
 Asia, Africa, America, Florida, Korea, etc.
 (35) media, data

어말에 오는 a가 ‘어’로 발음되지만, ‘아’로 표기하는 것은 오랜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는 표기의 특별한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어말의 a가 ‘어’로 표기되는 경우는 media(‘미디어’)가 있다.

어말에 분명히 ‘어’로 발음되는 경우들조차 아예 ‘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현재 많이 고쳐지고 있기는 하다. -er의 경우는 당연히 ‘어’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아직도 아로 하는 경우가 남아 있다.

- (36) center 센터, *센타
 heater 히터, *히타

이러한 경향은 ‘어’ 모음이 없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어식의 영어 발음이나 철자 기반의 발음표기는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복 2008, p. 28).

영어에서는 겹자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과는 다르게 겹모음은 두 개가 모두 발음된다.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의 반복을 표기할 때 하나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7) being [bi:ɪŋ] 빙, *비잉
- teeing [ti:ɪŋ] 텅, *티잉
- flying [flaɪɪŋ] 플라잉, *플라이잉
- staying [steɪɪŋ] 스테잉, *스테이잉
- dying [daɪɪŋ] 다잉, *다이잉
- lying [laɪɪŋ] 라이잉, *라이잉

국어의 표기에서는 겹자음이건 겹모음이건 하나의 글자로 발음되는 것으로 표기한다. 영어에서는 동일한 모음이 반복되어도 두 개의 소리로 발음된다. 외국에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두 개의 모음으로 발음해 주어야 한다.

영어의 중모음 ‘오우’를 한국어로는 ‘오’로 표기한다는 이유에서 ow를 ‘오’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우’로 쓰는 것이 옳아 보인다. show를 ‘*쏘’ 또는 ‘*쇼’라고 하는 것은 우 리말로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옳은 것은 아니다. 연예 방송에서 보다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다음을 비교하여 보자.

- (38) tone 톤, *토운
- zone 존, *조운
- phone 폰, *포운
- home 홈, *호움
- (39) slow 슬로우, *슬로
- window 윈도우, *윈도
- blow 블로우, *블로
- follow 팔로우, *팔로
- know-how 노우하우, *노하우
- rainbow 레인보우, *레인보
- show 쇼우, *쇼

영어에서 ‘오우’로 발음이 되지만, 굳이 철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는 한국어의 편의성을 위하여 ‘오’로 하는 것이 좋게 보인다. 그러나 w가 철자로서 나타나고, 또 실제로 발음

되기 때문에 ow는 ‘오우’로 표기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만약 follow의 경우에 ‘*팔로’라고 쓰면, follower는 ‘*팔로어’가 된다. 현행 표기법으로는 follow를 ‘팔로’라고 하기 때문에 follower은 ‘팔로+어’가 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follower를 흔히 ‘팔로워’라고 씀으로써 삭제된 ‘우’를 살려내고 있다. 그러나 ‘우’를 살린다면, follower는 ‘팔로우어’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 어쩌면 flower를 ‘플라워’라고 하는데서 오는 친숙함의 영향일 수도 있다. 실제 발음으로 본다면 ‘팔로워’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follower와 flower의 차별성을 부각한다면, 각각 ‘플라워’와 ‘팔로우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의 ow와는 대조적으로 aw에서는 w의 발음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를 표기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간혹 ‘우’가 첨가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을 오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0) law	로, *로우
raw	로, *로우
draw	드로, *드로우
sweater	스웨터
sword	소드, *스워드

‘스웨터’와는 다르게 sword는 w가 발음되지 않는다. 소리나지 않는 것을 표기하는 것은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앞 장의 자음 표기에서 언급하였듯이, [dʒ]의 표기는 ‘즈’ 또는 ‘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j]는 항상 ‘시’로 표기되지만, [dʒ]는 뒤따르는 모음이 없을 때에만 ‘지’로 표기된다. 이 두 발음은 아마도 전자가 s와 구별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굳이 z와 구별이 되어야할만큼 많이 쓰이지도 않고, 오히려 z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다.

(41) grandeur	그랜저, *그랜저
avengers	어벤저스, *어벤저스

이미 일반인들은 그냥 편하게 ‘그랜저’와 ‘어벤저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문자로 쓸 때 ‘*그랜저’와 ‘*어벤저스’라고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원음을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원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edge와 bridge를 ‘*엣지’와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원음에 가까운 것은 아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굳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에 특히 액센트 등의 부분은 한국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외국어 표기에서는 확인가능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Moyer, 2015, p. 124).

원음과는 다르지만, 단어 끝의 a는 ‘아’로 쓰고, o는 ‘오’로 쓰는 것이 영어의 표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e의 경우는 어떠한가?

(42) nike	나이키, *나이크
like	*라이키, 라이크
cafe	카페, *카페이, *까페
Avante	아반테, *아방트, *아방데이
Rotze	*로치, 로체

영어의 e는 단어 끝에서 묵음이거나 ‘이’이거나 ‘에이’로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반떼’와 ‘*로체’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아반떼’는 독일어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프랑스어 avant과 비슷하여 프랑스어에서 온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어말의 e는 원지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원지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원지음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느냐를 보아야 하는 세심함까지 필요한 것 같다. 독일어나 스페인어에서 온 경우에는 ‘에’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모음의 표기에서 원음이나 원지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원지음과 영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43) Shanghai	상하이, *상하이, 상해(上海)
Fuji	후지, *푸지, 부사(富士)

중국어의 원음을 따르는 표기법에 의하면 Shanghai는 ‘상하이’가 되는데 실제로는 중국어이건 영어이건 ‘상하이’가 더 적합하다. 한국이 채택한 중국어 표기법에서는 아마 ‘상하이’로 표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후지’가 되지만, 영어로부터 표기한다면 ‘*푸지’가 되어야 한다. 일본어에서 왔지만 실생활에서는 영어와 병기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富士는 ‘후지’로 하고, Fuji는 ‘푸지’로 하는 이중적 표기가 나오게 된다. 이 싸움에서 실제의 발음인 ‘후지’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Fuji를 ‘후지’라고 쓰게 되는 것 같다⁹⁾.

9) 김병기(2016)에서는 한자어를 한국어에 따라 표기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어의 上海와 일본어의 富士를 ‘상해’와 ‘부사’로 읽으면 간단하고 쉽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원지음을 존중한다는 것과 영어의 발음 중심 표기인 전사법의 유행으로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원지음주의에 대한 비판은 김병기(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영어의 모음 i의 경우를 보자. i의 경우는 ‘아이, 이, 어’의 세 가지 경우로 표기된다. 다음의 단어를 보자.

- (44) Mississippi [mɪsəsɪpi] 미시시피, *미서시피
 reversible [rɪ'və : səbl] 리버서블, *리버시블

Mississippi의 발음을 보면 두 번째 i의 발음기호는 ‘어’로 되어 있다. 한글 표기에서는 ‘어’의 발음이 되는 경우에도 ‘이’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약화된 발음으로서의 ‘어’와 ‘이’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철자의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i]와 [ə]는 모두 약화된 모음이라는 동질성이 있다. 그러나 reversible의 경우에는 ‘어’의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able/-ible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에서 brother를 ‘부라더’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엄마가 살인자로 나오는 영화의 제목이 ‘마더’인 경우도 있었다. brother와 mother의 ‘부라더’와 ‘마더’는 올바른 표기인가?

- (45) brother *부라더, 브러더
 mother *마더, 머더
 other *아더, 어더
 another *어나더, 어너더

brother와 mother의 줄인 단어인 bro와 mom은 각각 ‘브로우’와 ‘맘’으로 차이를 보인다. (44)에 나오는 o는 발음기호로는 [ɑ]가 아니라 샷갓모양이라고 하는 [ʌ]으로 발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의 통속적 표기와 표준적 표기가 공존하는 상황이 있다. 여기서 통속적 표기라함은 표준어의 규정에 따르는 중류층의 어휘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중류 이하의 또는 속어체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배터리’와 ‘뺨테리’와 같은 차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혼용 현상이 만연하여 어느 것이 속어체이고 어느 것이 표준체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¹⁰⁾.

영어의 o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표기상의 혼란을 주기도 한다. 비교적 흔한 예가 top 일 것이다.

10) 속어체가 아예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폭력조직의 사람들이 쓰는 것은 사회계층을 보이는 장점이 있다. 일상에서도 군대 이야기를 할 때 ‘빵카’라고 하는 것이 ‘병카’보다 생동감을 준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영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발음이 점차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속어로서의 표현과 표준어로서의 표기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 (46) top ‘툽’, ‘탑’
not ‘놏’, ‘낏’

어느 것으로 해도 좋아 보인다. 이러한 쓰임은 빈도수에 따른 차이이고, 통상적으로는 외래어의 표준을 영국영어의 발음에 두고 있고, 실제 사용의 기준은 미국영어에 둠에서 생긴다. 흔하게는 top를 ‘툽’이라고 쓰고, ‘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툽’보다는 ‘탑’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영국영어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I am not alone을 ‘아이 엠 놏 얼로운’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o가 ‘아’와 ‘어’의 두 가지 발음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대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립국어원의 방식으로는 문법과 어법을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어정책은 어느 한 방향으로 디자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Wright, 2016).

일본어나 중국어에서 오는 단어들은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 나의 주장은 현재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경우는 영어의 발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어나 일본어를 병기한다면 영어와 구별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Shanghai라고 쓰고 ‘상하이’라고 하면 중국어의 발음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따른 표기조차 틀리게 된다. 현재 이것은 외래어 표기의 혼란을 가져오는 주요한 사례가 된다.

한국어의 발음에 적응이 되어진 몇 가지 예외적 조항을 두어야 할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 (47) 1. s# ‘스’ players 플레이어스
2. a# ‘아’ Laura 로라
3. #Mc ‘맥’ McAdams 맥애덤스
4. ck ‘크’ packing 패킹

한국어의 음성으로 재현될 때 구분이 잘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철자를 그대로 발음하려는 경향 등과 맞물려서 한국어 속에 아주 익숙해진 사례들은 그대로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이미 익숙한 것은 지켜나가려는 정책이 굳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4. 결론과 제언

외국어가 한국어에 유입하여 만들어지는 외래어로서의 표기는 이제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언어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는 외래어의 표기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사용 빈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빈도의 문제는 바로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 1) 올바른 발음의 외국어의 표기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고양되어야 한다. 고유한 한국어와 수입된 외국어의 차이는 마치 토박이 한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의 차이처럼 여전히 차별되고 있다. 수입어의 수용에 좀 더 포용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Jenkins, 2000).
- 2) 올바른 영어 발음의 표기는 영어 교육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줄 수 있다. 즉 영어교육이 좀 더 수월해지고, 일상적으로 틀린 영어발음에 익숙한 한국인이 사뭇 다른 영어 발음을 만났을 때의 당황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 3) 국립 국어원은 이제부터라도 외래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외래어를 이른바 순화어라는 생소한 한국어로 바꾸는 노력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먼저 외국어의 정확한 표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국립 국어원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한 표기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영한 표기의 표준이 되는 사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 사람들이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러한 사전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 5) 국립 국어원이 해야 할 부차적 임무는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보다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하는 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대부분은 교사나 강사나 저술가들의 용어를 반복하여 들음으로서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국립 국어원이 신뢰를 회복하고 표준이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외래어의 표기에 있어서 원지음주의는 원칙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한자 문화권의 원지음주의는 굳이 국민 전체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지음주의보다 국민편의가 우선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만약 베트남이 자신의 나라 이름을 보다 정확한 한국어 표기인 ‘비에트남’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즉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달하는 것이다.
- 7) 외래어의 올바른 표기를 위한 사전 만들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어에 맞는 표기를 위한 특정한 규칙(ad hoc rules)을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면, 외래어 표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17). *외래어표기법*. (2017. 3. 28. 시행.)
- 국립국어원. (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2000. 7. 7. 시행)
- 김병기. (2016). *북경인가, 베이징인가?* 서울: 어문학사.
- 박종덕. (2015). 성공적인 국어 순화 정책을 위한 제언. *한글*, 309, 219-248.
- 배주채. (2015). 국어 발음 정책과 발음 교육의 방향. *새국어생활*, 25(1), 45-62.
- 유재원. (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15(1), 7-17.
- 이규태. (2012.) 영어발음의 한글발음표기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 발음지도 연구: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규. (2011).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국문학*, 158, 135-182.
- 이상혁. (2002). 외래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 서구 외래어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5, 101-123.
- 이송이. (2018). 영어 발음의 한글 표기 사용에 대한 인식 연구: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6, 313-333.
- 이정복. (2008). 외래어 순화 정책의 방향 - 정부 활동을 중심으로. *어문학*, 99, 327-66.
- 이종민. (2009). *가짜영어 진짜발음*.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하얀. (2017). 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점과 보완 방향. *언어와 정보사회*, 30, 189-205.
- 정 국. (2002). 외래어 표기법과 발음법.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7, 185-214.
- 정희창. (2015). 외래어 순화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어학*, 67, 89-104.
- 조남호. (2014).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대응.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논총*, 39, 813-38.
- 탁성숙. (2014). 한국어의 외래어수용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36, 257-294.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C. (2016). Languageism, linguistic diversity and language polic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2). 197-208.
- Milroy, J., & Milroy, L. (1985). *Authority in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lc [sic].

Moyer, A. (2015). *Foreign accent: The phenomenon of non-native spee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right, S. (2016). *Language policy and language planning: From nationalism to globalisation* (2nd ed.). Hampshire, the United Kingdom: Palgrave Macmillan.

이종민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전화: (063)270-2735

이메일: chongmin@jbnu.ac.kr

Received on January 31,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19, 2021

Accepted on March 30, 2021